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TCFD 권고안에 따른 BNP Paribas의 공시 사례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현황과 과제
최근 중국의 채권 디폴트 증가와 시사점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TCFD 권고안에 따른 BNP Paribas의 공시 사례	1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현황과 과제	4
최근 중국의 채권 디폴트 증가와 시사점	8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11
--------------------	----

TCFD 권고안에 따른 BNP Paribas의 공시 사례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 경 수 (yksoo@kdb.co.kr)
 김 창 엽 (dnr9411@gmail.com)

- ◆ BNP Paribas는 TCFD* 권고안에 따라 ①지배구조, ②경영전략, ③리스크 관리, ④지표 및 감축 목표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
 -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주도로 '15.12월 설립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로 '17.6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
- ◆ 기후변화는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위험 및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TCFD 권고안에 따른 정보 공시가 확대될 전망

※ 본고는 BNP Paribas에서 '20.5월에 발표한 "2019 TCFD Report"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2019 TCFD Report는 2019년 1년 동안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성과를 제시한 보고서임

□ (지배구조) BNP Paribas 그룹의 이사회는 기후변화 관련 그룹의 전략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와 전담부서가 전략 수행 지원 역할을 담당

- 이사회는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그룹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그룹의 환경 성과와 관련된 경영진 보상체계* 승인
 - * 경영진 보상은 그룹의 수익성 등 재무성과(75%), 이사회 정성평가(15%), CSR기준(기업의 사회적 책임, 10%)의 3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환경 성과는 CSR기준 평가요소 중 하나
-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CGEN*, CCIRC**)를 설치하였으며, CGEN은 그룹의 환경 이슈 감독(석탄산업 지원 축소 등) 등을, CCIRC는 그룹 전략의 환경 적합성과 위험 성향에 대한 이사회 앞 조언 등 수행
 - * CGEN(The Corporate Governance, Ethics, Nominations and CSR Committee)
 - ** CCIRC(The Internal Control, Risk and Compliance Committee)
- 경영진 및 부문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와 전담부서는 경영활동 관리, 위험 식별 및 기회 포착 등으로 전략 수행을 지원
 - * CEO를 포함한 6명의 경영진과 13명의 주요 부문장으로 구성
-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전략 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한편, 그룹의 환경 및 사회 관련 경영활동과 성과를 관리
- 전담부서는 환경 위험을 식별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외부금융위험관리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과 연관된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사업 부문을 지원하는 환경·에너지전환팀 등으로 구성

□ (경영전략) 그룹 내·외부에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하고 그룹의 경영활동 전반에 적용

- 그룹이 노출되어 있는 전환·물리적위험을 파악하고 녹색금융의 기회 요인을 발굴
 - (전환위험) 온실가스 고배출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 저하 등 신용위험 증가, 저탄소 경제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유지시 시장점유율 손실 등의 위험에 노출
 - (물리적위험) 수자원 감소로 인한 고객(수력발전 부문) 수익 감소, 폭염·홍수 등에 따른 동사 운영시스템(데이터 센터 등) 피해 등의 위험 발생 가능
 - (기회 요인)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의 영역에 대한 투자, 대출 등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
-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는 영업, 전략, 재무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바, 탄소 등급제, 금융 지원 등은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
 - 피투자기업에 대해 탄소등급제*를 시행하여 해당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을 장려
 - *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A~D 사이의 등급을 부여하며, C, D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를 진행하여 투자대상 여부 결정
 - 그린본드, 소셜본드, 그린대출, 지속가능연계대출, 그린펀드 등 조달 및 운용 측면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 실시
 - '19년에는 62억 유로 규모의 지속가능연계대출(Sustainability Linked Loans)*, 3개의 투자 펀드 결성, 10개의 생태 및 에너지 전환 스타트업 투자 등을 실시
 - * 차입기업과 대출은행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ESG 평가 기준(환경 등)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은 낮은 금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

□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제정

-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한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 수립
 - 유럽 각국 37개의 SRI(사회책임투자) 투자자에게 그룹의 CSR전략을 제시
 - 전세계 우호 NGO와 석탄, 삼림 벌채 등을 주제로 토론회 지속 개최
-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부문을 관리하는 금융·투자 정책 수립
 - 특정 사업부문*에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칙 및 절차**를 정의
 - * 석탄 기반 전기 발전, 광산업, 팜 오일 생산, 종이 펄프 생산, 농업 등
 -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시 준수가 요구되는 적도원칙 등

□ (지표 및 감축 목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표 및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노력 경주

-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할 목적으로 다양한 지표를 계산하고 발표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공시
 - 지표의 예로, 신재생에너지 파이낸싱 규모는 '19년 159억 유로로 '15년 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직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년 2.32 tCO₂e/FTE*로 4년 만에 20% 감소
 - * tCO₂e(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이산화탄소환산톤)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측정단위로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CO₂=1, CH₄=21, N₂O=310 등)를 이용하여 CO₂에 상당하는 온실효과로 환산, FTE(Full time equivalent)는 전일종사 노동자의 수를 의미
 - '19년 그룹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61천 tCO₂e로 전년 대비 7.1% 감소
 - (Scope1) 건물의 가스·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61천 tCO₂e
 - (Scope2) 에너지 구매와 관련된 간접 배출량은 281천 tCO₂e
 - (Scope3) 출장시 교통수단 이용으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은 119천 tCO₂e
-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파이낸싱, 탄소 집약도 등에 대해 양적 목표 확대
 - '15년에는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파이낸싱에 할당된 금액을 '15년의 두 배 수준인 150억 유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및 조기 달성('18년)*
 - * '19년 말 기준 159억 유로, '21년 말까지 180억 유로로 목표 상향 조정
 -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8년 그룹이 대출 및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의 탄소 함량은 글로벌 평균 476 gCO₂e/kWh(1kWh당 이산화탄소환산그램) 보다 낮은 299 gCO₂e/kWh

□ 향후 TCFD 권고안에 따른 기업 및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는 확대될 전망

- '20.10월 TCFD '제3차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재무정보 공시 비율은 '17년 20.4%에서 '19년 26.9%로 증가
 - * '17~'19년 영문 연차보고서를 발간한 1,701개 상장기업 대상(은행업 286개, 보험업 138개 포함)
- '21년부터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저탄소 경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대응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현황과 과제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구 지 선 (jsvm48@kdb.co.kr)

- ◆ 저탄소·친환경 트렌드의 대두로 석유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 민간의 친환경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회이며,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필요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친환경 트렌드의 대두로 인해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석유기반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의 CO₂ 배출과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특성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제조 과정에서 CO₂ 배출이 적고** 생분해 특성 등 생태유해성이 낮은 바이오플라스틱이 산업적·친환경적 대안으로 부상
 - * 석유 기반 플라스틱은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된 PE, PP 등의 석유화학 플라스틱 제품을 의미하며, 비닐류, 페트병류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
 - ** 석유 기반 플라스틱인 PP의 경우 1kg 생산시 2.4kg의 CO₂가 배출되는 반면, 바이오플라스틱인 PLA의 경우 1kg당 CO₂ 배출량은 1.2kg으로 PP의 50% 수준에 불과
- 바이오플라스틱은 식물 등 바이오 매스를 원료로 하거나 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생분해 특성을 부여한 플라스틱을 의미
 - 원료의 유래 또는 생분해성 등에 따라 생분해 플라스틱,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으로 구분

바이오플라스틱의 종류와 특징

구분	생분해 플라스틱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천연물계	석유계		결합형	중합형
바이오매스 함량	50-70% 이상	-	-	20-25% 이상	
사용원료	천연물, 미생물	석유유래 원료	생분해 촉매제 등	천연물-고분자 결합	천연물-단량체 중합
종류	PLA, PHA, Starch Blend 등	PBAT, PBS 등	Oxo Bio PE 등	Bio PE, Bio PET 등	
특징	빠른 생분해		분해기간 조절가능	탄소 배출 저감	
분해 방법	미생물 분해		산화분해 후 미생물 분해	-	
생분해 기간	6개월 이내 90% 이상		6개월 이내 60%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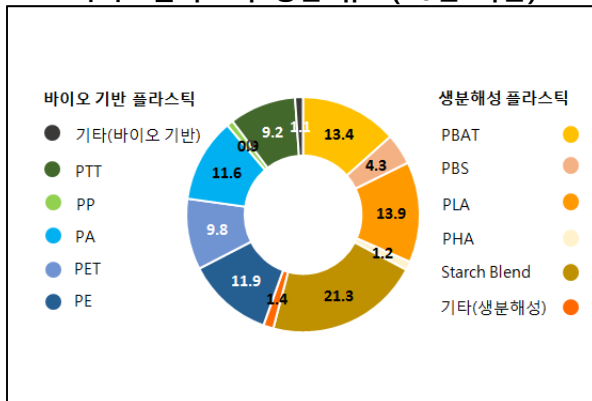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 협회

□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량*은 '19년 2,115천톤 규모이며, '24년까지 연평균 3.2%의 지속적인 성장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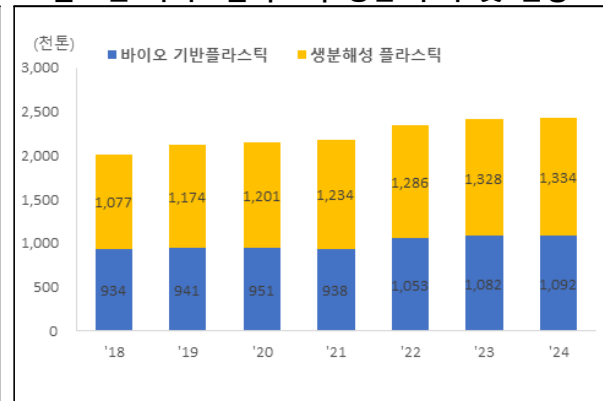
- * '19년 기준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은 368백만톤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5.7%
- '19년 중 제품별 비중은 Starch Blend(21.3%), PLA(13.9%), PBAT(13.4%)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56%이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44%를 차지
- '24년에는 생산량 가운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45%,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55%로 향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규모('19년 기준)



자료 : European Bioplastics(2019)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추이 및 전망



주 : '20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 European Bioplastics(2019)

<참고> 주요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용어 정리

- **PLA(Polylactic Acid, 폴리유산)** : 옥수수 등에서 추출된 전분을 발효시켜 생성된 유산을 중합한 제품으로 일회용 그릇 등으로 사용
- **PHA(Polyhydroxy Alkanoates)** : 당을 먹이로한 미생물로부터 생산된 플라스틱으로 컵, 포장재 등으로 사용
- **Starch Blend** : 옥수수 등에서 추출된 전분을 기반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 **PBAT(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 파라자일렌으로부터 생산된 DMT(Dimethyl Terephthalate) 등을 중합한 제품으로 식탁보 등의 소재로 사용
- **PBS(Polybutylene Succinate)** : 아세틸렌으로부터 생성된 부타디올을 중합한 제품으로 어망, 빨대 등의 소재로 사용
- **Oxo Bio PE** : PE(Polyethylene)에 바이오매스 및 산화생분해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된 플라스틱으로 비닐 등으로 사용
- **Bio PE** : PE에 바이오매스를 첨가하여 제조된 플라스틱으로 비닐로 사용
- **Bio PET**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바이오매스를 첨가하여 제조된 플라스틱으로 일회용 병 등으로 사용

- 주요국 정부 및 기업들은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합작회사 설립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선점을 위해 노력 중
 - EU는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통해 바이오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미국은 '2030년까지 석유 소비량의 30%를 바이오 화학 제품으로 대체' 목표 하에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추진 중
 - 美 Dupont社는 Tate&Lyle社(네덜란드)와 합작으로 Dupont Tate&Lyle을 설립하고 연간 4.5만톤 규모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 중
 - 美 Natureworks社(Dow Chemical과 Cargill의 합작기업)는 생분해 플라스틱인 PLA(15만톤/년)를 생산하고 있으며, BASF(獨) 역시 연간 7.4만톤 규모의 PBAT 등을 생산 중

- 국내에서는 석유화학 등 관련 대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 석유화학(LG화학 등) 및 발효 전문(CJ제일제당 등) 대기업들의 기술확보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 기반 플라스틱 대비 높은 가격과 저조한 수요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실정
 - 그러나 최근 폐플라스틱 증가, 탄소배출 저감 등의 이슈가 대두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도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중

국내 주요 기업의 바이오플라스틱 투자계획

기업	내 용
SKC	○ '21년 중 고강도 PBAT 상업생산을 목표로 고강도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양산기술 투자 * '20.5월 한국화학연구원 등과 MOU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사업" 참여
LG화학	○ 합성수지와 기계적으로 동등한 물성을 구현할 수 있는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 추진 - '22년 시제품 생산 및 검증, '25년 본격 양산 계획 * '20.11월 바이오 디젤 기업인 Neste社(핀란드)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친환경 합성수지 생산을 위한 바이오 원료의 안정적 조달기반 확보
CJ제일제당	○ '21년 중 100% 해양 생분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PHA 생산 추진 - 인도네시아에 연산 5,000톤 규모의 전용 생산라인 구축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2.3)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언론보도 등

□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

- '20.12.3일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정밀·특수화학 등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보급 확대, 고부가가치 정밀·특수 화학제품의 밸류체인 강화, 산업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이슈의 대두로 민간기업의 친환경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 후속 전략 수립을 통해 관련 시장 창출 및 민간투자 견인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
 - 기업은 기반기술 확보, 신소재 및 유망제품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은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 앞 적시 금융지원 제공 추진

최근 중국의 채권 디폴트 증가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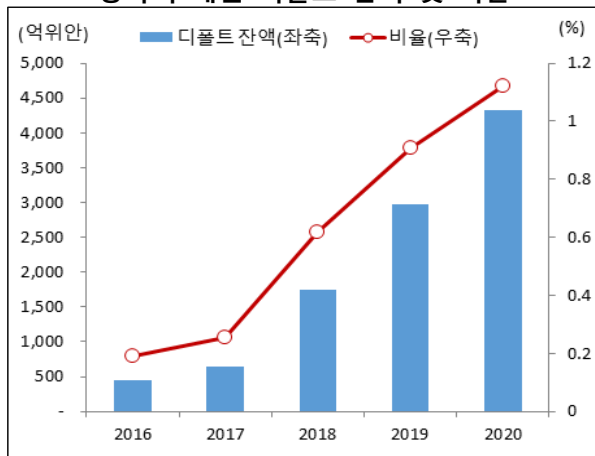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은영 (liey@kdb.co.kr)

- ◆ '20년 중국의 채권 디폴트 잔액은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난 11월 용청석탄전력, 칭화유니그룹과 같은 최고 신용등급 국유기업의 디폴트로 인해 시장 불안심리 점증
- ◆ 그 여파로 채권발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12월 들어 중국 채권 시장을 통한 순자금조달 규모는 마이너스를 기록
- ◆ 이는 중국의 신용평가 취약성을 노출한 것임과 동시에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당분간 디폴트 증가는 불가피하나 글로벌 신용평가사 진출과 대내 제도 개혁 등으로 시장 질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중국의 채권 디폴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우량 신용등급 국유기업이 만기 상환에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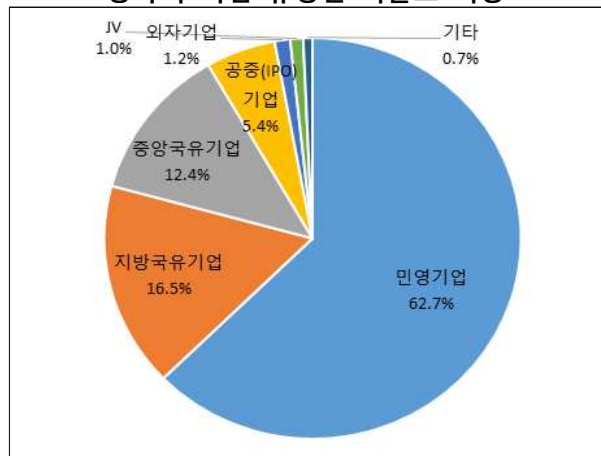
- 채권 디폴트 잔액은 '20.12.16일 기준 약 4,330억위안(약 72.7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 증가하였고 디폴트 비율도 1%를 상회
 - 이 중 민영기업 비중은 62.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지방정부 산하 지방 국유기업, 중앙부처 산하의 중앙 국유기업이 각각 16.5%, 12.4%를 차지
 - '20년 신규 디폴트 기업 수는 27개로 '18년 40개, '19년 43개보다 축소됐으나, 기존 디폴트 기업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디폴트 잔액 증가세 지속
 - 신규 디폴트 기업 중 국유기업 비중은 26%로, '18년 13%, '19년 16%를 상회

중국의 채권 디폴트 잔액 및 비율



주 : '20.12.16일 기준
자료 : WIND

중국의 기업 유형별 디폴트 비중



주 : '20.12.16일 기준
자료 : WIND

- 최근 최고 신용등급 AAA를 부여받은 국유기업 중 만기 상환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국 채권시장과 신용등급 신뢰도에 대한 불안심리 점증
 - '20.11월 최고 신용등급 지방국유기업인 용청석탄전력에 이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주력이자 중앙국유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이 만기 채권 상환에 실패
 - 동사는 칭화대 산하의 산학협력기업으로 '19.12월 베이징대 산하 산학협력 기업인 베이다광정그룹의 디폴트 직후 달러채 가격이 급락한 바 있음
 - WIND 집계('20.12.16)에 따르면, '20년 신용채*를 발행한 기업 중 신용등급이 AAA인 비중은 46%에 달함
- * 중국은 국채, 지방정부채, 중앙은행 어음, 정책은행채를 '금리채'로 분류하고, 금융채와 기업채(중앙 정부 소속기관, 국유독자 및 지배기업 발행), 회사채, MTN, 사모채, ABS, CB 등을 '신용채'로 분류

중국 AAA 등급 기업의 디폴트 사례

(단위 : 억위안)

최초 시점	기업명	유형	디폴트 규모		비고	최신 신용등급
			최초	잔액		
'19.04.08	중국민성투자	민영기업	8.5	8.5	실질적 디폴트	AAA('18.11)
'19.09.30	칭하이엔후공업	지방국유기업	15.0	61.7	'20.6.24에도 이자 미지급	BB('20.7)
'19.12.02	베이다광정그룹	중앙국유기업	20.0	365.4	실질적 디폴트	C('20.7)
'20.04.15	하이난항공그룹	지방국유기업	3.9	33.9	만기 연장 합의	AAA('19.6)
'20.04.20	중룽신다그룹	민영기업	6.5	21.5	'20.12.10에도 이자 미지급	C('20.7)
'20.09.08	보하이리스	기타	5.0	-	만기 연장 합의	AAA('19.9)
'20.10.23	화천자동차그룹	지방국유기업	10.0	132.0	실질적 디폴트	C('20.12)
'20.11.10	용청석탄전력	지방국유기업	10.0	-	50% 상환, 나머지 연장	B('20.12)
'20.11.16	칭화유니그룹	중앙국유기업	13.0	63.0	실질적 디폴트	B('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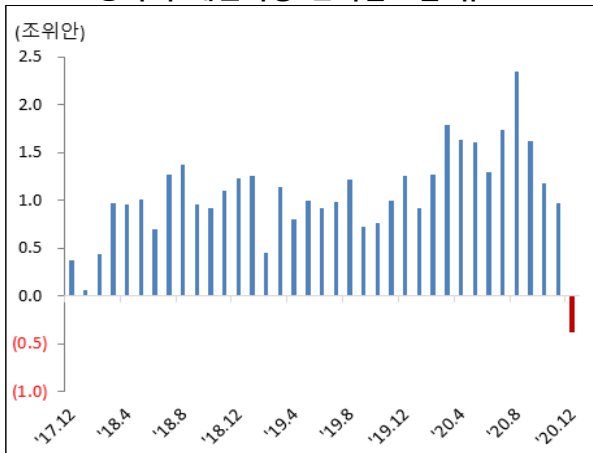
주 : '20.12.16일 기준. 채권 발행시 신용등급 AAA 기업 위주로 정리. 디폴트 잔액에 연체 이자는 미포함
 자료 : Wind, 중국 현지언론 보도 정리

□ 연이은 국유기업 및 최고 신용등급 기업 디폴트 여파로 '20.12월 중국 채권시장을 통한 순자금조달 규모는 12.16일 기준 마이너스 기록

- '20.12월 중국 채권시장 순자금조달 규모는 16일 기준 △3,794억위안으로 신규 발행이 만기 도래 규모를 하회
 - 동월 신규 발행 규모는 약 3.2조위안이며, 만기 도래 규모는 약 3.6조위안
 - 신규 발행 증가율은 전월 대비 △33.1% 기록
 - 월간 순자금조달 규모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13년 이래 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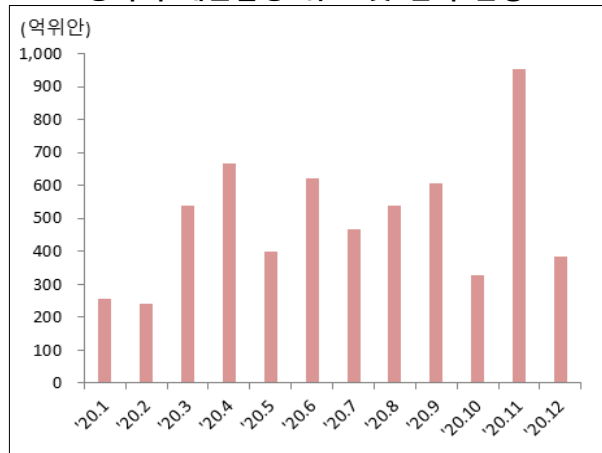
- 지난 11월부터 채권시장 투자심리 등을 감안하여 채권발행을 취소하거나 연기 하는 사례 급증
 - 특히 용청석탄전력의 디폴트가 발생한 11.10일부터 12.16일까지의 발행 취소 및 연기 물량은 약 1,273억위안이며, 이 중 약 90%가 국유기업 물량
 - 동기간 채권발행을 취소·연기한 AAA 등급 중앙국유기업 수는 15곳에 달함

중국의 채권시장 순자금조달 규모



주 : '20년 수치는 '20.12.1~16일 누적치
자료 : WIND

중국의 채권발행 취소 및 연기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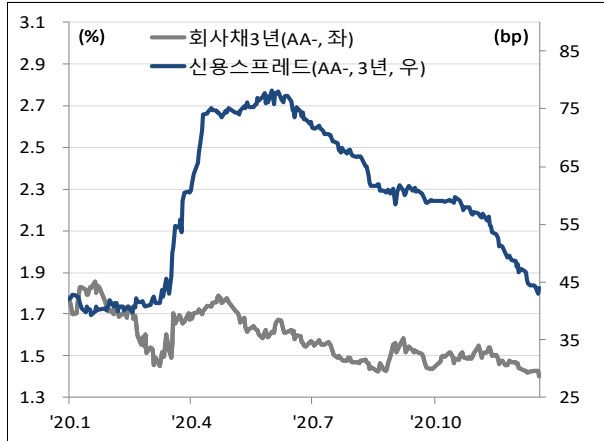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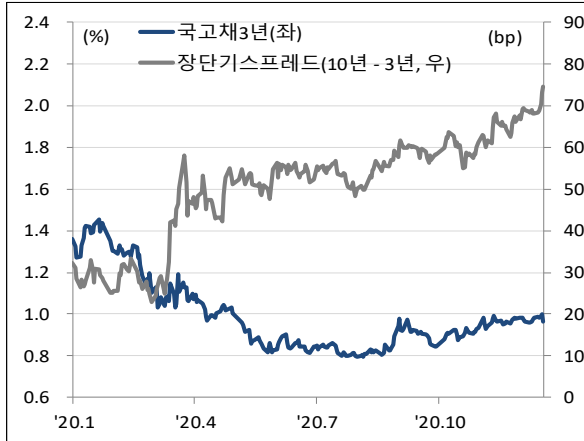
주 : '20년 수치는 '20.12.1~16일 누적치
자료 : WIND

□ 기업 신용평가 취약성 등으로 중국의 채권 디폴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나 자본시장 '개혁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점차 시장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

- 우량 신용등급 국유기업의 채권 디폴트는 중국내 신용평가 취약성을 노출함과 동시에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반영
 - 칭화유니와 같은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기업의 디폴트는 우량 신용등급의 중앙국유기업도 '디폴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그널로 해석*
 - * 중국의 국채수익률은 3대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외국인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과 통화정책 긴축 전환 전망 등을 반영하여 상승세 지속. 외국인의 채권보유액은 '20.1~11월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하였으나, 미·중 2년물 국채 금리차는 '20.2.12일 84bp에서 11.20일 296bp로 상승
-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 개방 등으로 중국의 채권 신용평가 시스템이 개선되고 외국인 자금 유입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19.1월 S&P가 중국내 자회사 설립을 승인받고 위안화 채권 신용평가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20.5월 Fitch도 자회사 설립 승인 취득
 - 인민은행은 '20.12.11일 신용평가업 발전좌담회를 개최하고 관리감독 강화 예고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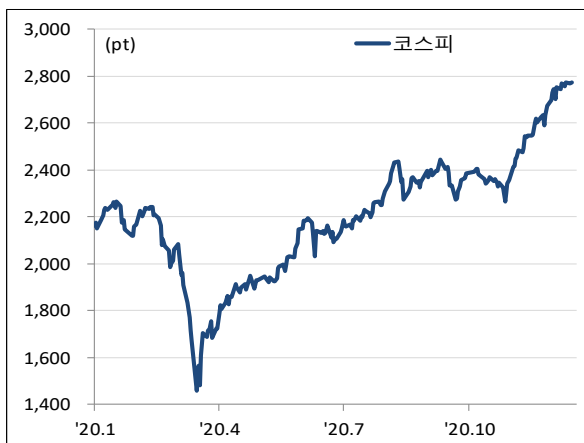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0.963% (1.7bp ↓), 신용스프레드 43.9bp (0.5bp ↓)



환율 원/달러 1,099.7원 (9.4원 ↑), 엔/달러 103.31엔 (0.75엔 ↓)



주가 코스피 2,772.18pt (0.08% ↑), 코스닥지수 947.24pt (2.02%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08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